

647-648년 唐의 高句麗 침공과 인력·물자 동원

최진열*

I. 서론

II. 647-648년 唐의 高句麗 침공 개요

III. 唐의 인력·물자 동원

IV.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貞觀 21-22년(647-648) 唐兵의 高句麗 침공과 관련된 단편적인 사료에서 발견한 단서를 실마리로 하여 唐의 인력과 물자 동원 양상을 분석한 연구이다. 唐太宗이 高句麗 정복을 위해 세 차례나 海船 건조를 명령하였다. 이때 배 1척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바탕으로 唐太宗이 건조하라고 명령한 건조비용과 동원 인력 등을 추산할 수 있다. 본고에서 零星한 사료를 종합하여 貞觀 21-22년(647-648) 唐軍의 高句麗 침공과 미완의 高句麗 침공(唐太宗의 죽음으로 중지) 준비를 인력과 물자 동원, 재정 지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 崔珍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연구교수.

e-mail: d-choi@daum.net

貞觀 21년(647) 三月 李勣·孫貳郎·鄭仁泰등 唐兵 3천 명이 출정하였다. 이들이 육로로 진격했으므로 3천 명의 군량과 무기는 河北道 백성 또는 병사들이 차출되어 운반했다. 通典·州郡典의 예로 계산한 李勣등 3천 명이 三月부터 五月까지 3개월 동안 소비한 식량은 2,910石에 불과하다. 그러나 육로로 식량을 운반해야했기 때문에 정규군인 3천의 2배인 9천 명의 운송인력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河北道 내지에서 차출해야 했을 것이다. 숫자는 적지만 幽州와 營州사이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적었기 때문에 幽州 이남의 지역에서 동원된 백성들과 군사들이 營州까지 운송하는 거리도 만만찮았다. 게다가 이들이 50일 이상 군량 수송에 동원 되었으므로 租庸調를 면제해야 했고 三月-五月의 농사철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농사를 망쳤다.

牛進達과 李海岸의 1만 唐兵은 貞觀 21년(647) 三月부터 七月까지 高句麗의 해안 일대에서 작전하기 위해, 최소 5개월의 식량, 즉 최소 16,667石의 식량을 휴대하였다. 薛萬徹과 裴行大가 貞觀 22년(648)에 지휘한 3만의 唐兵이 正月부터 七月까지 대략 7달 동안 高句麗의 鴨綠水 등지를 침략하는 동안 휴대한 식량이 최소 67,900石이다. 당대 丁에 租庸調를 부과하는 규정에 따라 萊州 및 주변 11州에서 거둘 수 있는租는 219,574石이었다. 따라서 高句麗원정군의 식량인 최소 16,667石과 67,900石의 식량을 萊州와 山東半島일대 州에서 거둔 징발하고 운송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烏胡鎮에 石神感이 이끈 5천의 보병과 기병이 주둔하였다. 주둔 기간을 알 수 없어 주둔군에게 필요한 군량을 계산할 수 없다. 貞觀 22년(648) 벌어진 세 차례의 해상침략 기사에서 동원된 선박 수를 기록하지 않아 선박제조비용 또는 동원인력을 계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 唐의 국지전이 시작된 貞觀 21년 모두 1,350척의 배를 만들었다면 735,217명분의 50일 노동력 또는 그에 해당하는 1년 租庸調징수액이 필요하였다. 735,217명분은 당시 인구의 5.95%, 남녀 성비와 성인·노약자 비율

이 각각 1:1이라면 성인 남성의 23.8%에 해당한다. 貞觀 21-22년 唐의 ‘기습 국지전’ 당시 唐軍은 최대 3만 명(貞觀 22년 薛萬徹과 裴行大이 동원한 군대의 수)을 동원하여 병사나 물자 동원에 수나 양적으로 무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350척의 배를 건조하는데 약 735,217명의 노동력을 동원했다면 동원인력을 적다고 보기 어렵다.

군량 수송과 선박 제조에 동원된 인력이 약 735,217명이었는데, 이들의 요역 동원 시간이 50일을 초과했으므로 735,217명의 1년치 租庸調세금을 면제해야 했다. 성년 남성이 전체 인구의 1/4이었다면 면제된 재정 수입은 전체의 27.5%에 해당했으므로 唐의 재정 손실이 컸다. 따라서 冊府元龜와 新唐書, 資治通鑑 에 기록된 唐軍의 전과와 高句麗의 피해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唐역시 高句麗와의 전쟁을 위한 배를 만드는데 많은 인력과 재력을 소모해야 했다.

주제어 : 기습 국지전, 고구려, 당, 병참 문제, 전체 예산의 20.4%

■ Abstract

The Military Mobilization and Logistics in Goguryo-Tang Hit-and-Run Local War in 647-648

CHOI Jinyeou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This thesis is the academic analysis of the military mobilization and logistics in Goguryo-Tang Local War in 647-648.

Three times invasion of Goguryo territory in March 647, from the third month to the seventh month of the lunar year 647, and from the first month to the seventh month of the lunar year 648 by Tang Soldiers, needed 2,910, 6,667 and 67,900 shi[bushels] of grain, respectively.

It took 735,217 people to build 1,350 ships for 65 days or the equivalent amount of collection of zuyongdiao during the Goguryo-Tang Local War in 647. 735,217 people accounted for 5.95% of the population at the time, and 23.8% of adult men called ding(丁), if the gender ratio was 1:1. According to Tang law, they had to be exempt from taxes, which meant the loss of financial income, accounted for 27.5% of the total budget. In short, this hit-and-run local war was not only damaged by Goguryeo, but also a heavy burden on the people of Tang Dynasty, who were mobilized to prepare for the war, which is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is paper.

Key-Words : Goguryo-Tang Hit-and-Run Local War, Goguryeo, Tang Dynasty, logistics problem, 20.4% of the total budget

I. 서론

唐太宗은 高句麗 親征에서 실패한 후 薛延陀汗國을 멸망시키고 契丹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등 주변 국가를 정복하거나 복종시켰다. 이후 唐太宗은 다시 高句麗 공격을 계획하였고 貞觀 21년(647)에 수천 또는 수만의 병력으로 농사철의 고구려 땅을 공격하여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貞觀 22년(648)까지 계속된 이 전투는 高句麗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결국 멸망의 한 원인이었다고 해석된¹⁾ 貞觀 21-22년(647-648)의 전투 명칭은 아직 한국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명명되지 않았는데, 일부 학자는 ‘長期消耗戰略’으로 명명하였다.²⁾ 중국학계는 이를 ‘騷擾戰’이라 칭하였다.³⁾ 본고에서 잠정적으로 ‘치고빠지기 전략’ 또는 ‘기습 국지전’으로 명명한다. 이 시기 전투 기사는 단편적이고 일방적으로 高句麗가 패한 기록만 있으므로 史書의 번역 수준 이상의 연구는 불가능하였다.

필자는 貞觀 21-22년(647-648) 唐軍의 高句麗 침공과 관련된 단편적인 사료에서 唐의 인력과 물자 동원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唐太宗이 高句麗 정복을 위해 세 차례나 海船 건조를 명령하였다. 이때 배 1척을 만드는 비용을 기록한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唐太宗이 건조하라고 명령한 건조비용과 동원 인력 등을 추산할 수 있다. 본고에서 零星한 사료를 종합하여 貞觀 21-22년(647-648) 唐兵의 高句麗 침공을 인력과 물자 동원, 재정 지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貞觀 21-22년(647-648) 唐軍의 高句麗 침공 당시 唐兵의

1) 李丙燾. 1959; 李丙燾. 1976; 李萬烈. 19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1; 임기환. 1994; 李昊榮. 1996; 임기환. 2012; 노태돈. 2009; 임기환. 2014, 7-33; 정동민. 2017, 259-294.

2) 나동욱. 2009, 35-39.

3) 楊希義·于汝波. 1998, 260-261.

수와 동선 등을 분석하여 인력과 물자의 동원, 수송 등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어서 3장에서 唐太宗이 高句麗 정복을 위해 취한 세 차례의 海船 건조 등의 조치를 분석하여 高句麗 침공을 위한 전쟁 준비가 백성들과 국가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한다.

II. 647-648년 唐의 高句麗 침공 개요

唐太宗은 高句麗 親征을 끝내고 돌아온 후에도 高句麗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 唐太宗은 貞觀 21년(647) 二月 薛延陀汗國을 평정한 후 다시 高句麗 親征을 준비하였다.⁴⁾ 貞觀 21년 八月에 高句麗에 新羅를 침공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고 八月 壬申日(647.9.22)에 高句麗의 朝貢을 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高句麗 침략을 논의하도록 하였다.⁵⁾ 이에 신하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하였다.

“天子는 손목을 불끈 쥐며 노기를 띠며 결국 高句麗를 정복하려고 하였다. 中議에서 ‘高麗의 城雉는 山에 의존하여 [만들었으므로] 공격해도 쉽게 점령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폐하께서 親伐할 때 그들의 耕稼를 못하게 하고 함락한 城에서 모두 그 곡식을 거두었으며, 韓師旅는 炎旱이 계속 이어져서 夷人의 2/3는 곡식을 끊었습니다. 만약 적은 수의 병사들로 번갈아 邊場의 곡식을 짓밟으면, 저들은 손해를 입고 命을 받고 바빠 돌아다녀서 지치며 耕夫는耒를 내버리고 모두 堡로 들어가게 되니 島夷의 邑은 千里가 荒蕪하게 될 것입니다. 古人이 ‘金城湯池라고 하더라도 粟이 없으면 군게 지킬

4) 楊希義·于汝波. 1998, 260-261.

5)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太宗貞觀二十年八月庚辰條, 6241, “上自高麗還, 蓋蘇文益驕恣, 雖遣使奉表, 其言率皆詭誕; 又待唐使者倨慢, 常窺伺邊隙. 屢敕令勿攻新羅而侵陵不止. 壬申, 詔勿受其朝貢, 更議討之.”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이처럼 두세 차례 계속한다면 高麗는 반드시 매우 큰 경제적 곤궁에 빠질 것이고 자연히 도망가서 흩어지게 되니 누가 기꺼이 莫離支를 위해 城을 농성하여 굳게 지키겠습니까? 鴨渌水 이북의 지역을 싸우지 않고 취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장이 있었다. 天子는 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명령하였다.”⁶⁾

위의 인용문은 『冊府元龜』에 실린 문장인데, 『資治通鑑』에도 글자를 바꾸거나 일부 삭제하여 축약하여 기록되었다.

“上은 장차 다시 高麗를 정벌하려고 했는데 朝議에서 ‘高麗는 山에 의지하여 城을 쌓으니 공격해도 빨리 점령할 수 없습니다. 전에 폐하께서 親征하실 때, 高麗의 國人들은 耕種할 수 없었고, 이긴 城에서 모두 그 곡식을 거둬들였으며 연이어 旱災가 들자 民의 太半이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만약 여러 차례 偏師를 보내 번갈아 高麗의 疆場을 어지럽혀서 저들이 命을 받고 바빠 돌아다녀서 지치게 하여, 쟁기를 버리고 堡에 들어가게 하면 數年 사이에 千里가 적막하게 되면 人心이 스스로 이반하게 되니 鴨綠의 북쪽은 가히 싸우지 않고도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上은 그 의견을 따랐다.”⁷⁾

6) 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一年三月條, 11405, “天子扼腕含怒, 終欲取之, 中議以為: ‘高麗城雉依山, 攻之不可卒下, 往前蠻駕親伐, 廢其耕稼, 所陷之城, 並收其穀, 韓師旅炎旱相繼, 夷人以猥, 眾大半斷粒. 若得少兵, 番次蹂其邊場, 彼瘡痍之殘, 疲於奔命, 耕夫釋耒, 並皆入堡. 島夷之邑, 千里荒蕪, 古人云: 『金城湯池, 非粟不固』 若再三如此, 高麗必大窘迫, 自然逃散, 誰肯為莫離支嬰城? 鴨渌水以北, 可不戰而取.’ 天子以為然, 故有是命.”

7)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太宗貞觀二十一年二月丁丑條, 6245, “上將復伐高麗, 朝議以為: ‘高麗依山為城, 攻之不可猝拔. 前大駕親征, 國人不得耕種, 所克之城, 悉收其穀, 繼以旱災, 民太半乏食. 今若數遣偏師, 更迭擾其疆場, 使彼疲於奔命, 釋耒入堡, 數年之間, 千里蕭條, 則人心自離, 鴨綠之北, 可不戰而取矣.’ 上從之.”

양자의 인용문을 비교하면 『資治通鑑』의 문장이 더 간결하다. 두 인용문에서 조정 신하들의 주장이 옳다면 645년 唐太宗의 高句麗 親征 당시 高句麗는 唐兵 때문에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더위와 가뭄 때문에 농사를 망쳤으며 백성의 2/3가 식량 부족으로 고생하였다. 이는 高句麗의 피해가 컸음을 뜻한다. 唐의 신하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적은 수의 군대로 번갈아 高句麗를 공격하면 高句麗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방어시설인 堡에 들어가 唐兵을 막기에 급급하게 되므로 농사를 망치게 되고 결국 백성들의 민심 이반과 高句麗 경제의 파탄을 야기하여 唐兵이 전보다 쉽게 鴨綠水 이북의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唐太宗은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大軍으로 공격하는 전술대신 소규모 부대로 소란을 일으키는 작전을 세웠다.

이 ‘치고빠지기’ 전략에 따라 唐太宗은 貞觀 21년(647) 三月 左武衛大將軍 牛進達을 靑丘道行軍大總管, 右武衛大將軍 李海崖를 副總管에 각각 임명하여 1萬餘명을 樓船·戰舸에 태워 萊州에서 바다를 건너 高句麗로 진격하라고 명령하였다. 또 特進 太子詹事 英國公 李勣을 遼東道行軍大總管에 임명하고 右武衛將軍 孫貳郎과 左屯衛大將軍 鄭仁泰를 副將으로 삼아 3천 명을 지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營州都督府의 兵馬를 李勣에 속하게 하였다. 李勣은 遼水를 건너 新城道에서 高句麗를 공격하였다. 양군을 징발할 때 滄波에 익숙하며 적은 수로 많은 수의 군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속시켰다.⁸⁾ 이 기사는 『新唐書』⁹⁾와 『資治

8) 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一年三月條, 11404-11405, “二十一年三月, 伐高麗, 以左武衛大將軍牛進達為靑丘道行軍大總管, 右武衛大將軍李海崖為副, 發兵一萬餘人, 並樓船戰舸, 自萊州泛海而入. 又以特進太子詹事英國公李勣遼東道行軍大總管, 右武衛將軍孫貳郎·左屯衛大將軍鄭仁泰為副, 配兵三千人, 其營州都督府所管兵馬盡皆隸勣. 於是厲涉遼東, 自新城道入. 兩軍之發也, 並遣慣習滄波, 能以少擊眾者而配隸焉.”

通鑑』¹⁰⁾에도 있다. 같은 해 五月 李世勣이 南蘇城 등 여러 성을 공격하고 高句麗軍을 격파한 후 羅郭을 불사르고 돌아왔다.¹¹⁾ 牛進達와 李海崖도 七月에 高句麗의 石城을 공격하여 남녀 수백 인을 생포하고 積利城까지 진격하였고 高句麗軍 1萬餘 人의 공격을 격파하고 2천 급을 참하였다.¹²⁾ 이 기사도 『新唐書』¹³⁾와 『資治通鑑』¹⁴⁾에도 보인다. 牛進達와 李勣이 이끄는 군대에 항해와 水戰에 능한 군사들을 배속시켰다는 구절에서 李勣의 군사들도 해로로 진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李勣의 唐兵이 공격한 南蘇城과 木底城이 현재의 遼寧省 新賓으로 비정되고 있기 때문에¹⁵⁾ 육로로 진격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貞觀 21년(647) 唐兵은 각각 육로와 해로로 高句麗를 침략하였으며, 출발지는 營州(육로)와 萊州(해로)였다.

-
- 9)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4, “又明年三月, 詔左武衛大將軍牛進達為青丘道行軍大總管, 右武衛將軍李海岸副之, 自萊州度海; 李勣為遼東道行軍大總管, 右武衛將軍孫貳朗·右屯衛大將軍鄭仁泰副之, 率營州都督兵, 繇新城道以進.”
- 10)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太宗貞觀二十一年二月丁丑條, 6245-6246, “三月, 以左武衛大將軍牛進達為青丘道行軍大總管, 右武衛將軍李海岸之, 發兵萬餘人, 乘樓船自萊州汎海而入. 又以太子詹事李世勣為遼東道行軍大總管, 右武衛將軍孫貳朗等副之, 將兵三千人, 因營州都督府兵自新城道入. 兩軍皆選習水善戰者配之.”
- 11)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太宗貞觀二十一年五月條, 6247, “李世勣軍既渡遼, 歷南蘇等數城, 高麗多背城拒戰, 世勣擊破其兵, 焚其羅郭而還.”
- 12) 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一年七月條, 11405, “七月, 牛進達·李海崖攻高麗石城, 陷之, 虜男女數百人, 師次積利城下. 高麗出軍萬餘人拒戰, 海崖等擊破之, 斬首二千級.”
- 13)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4, “次南蘇·木底, 虜兵戰不勝, 焚其郭. 七月, 進達等取石城, 進攻積利城, 斬級數千, 乃皆還. 藏遣子莫離支高任武來朝, 因謝罪.”
- 14)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太宗貞觀二十一年七月條, 6249, “秋七月, 牛進達·李海岸入高麗境, 凡百餘戰, 無不捷, 攻石城, 拔之. 進至積利城下, 高麗兵萬餘人出戰, 海岸擊破之, 斬首二千級.”
- 15) 楊希義·于汝波. 1998, 260.

貞觀 22년(648) 正月에 右武衛大將軍 薛萬徹이 靑丘道行軍大總管에 임명되고 右衛將軍 裴行大가 副將이 되어 3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樓船과 戰艦을 타고 萊州를 출발하여 바다를 건너 高句麗를 공격하였다.¹⁶⁾ 薛萬徹의 병사들이 六月에 鴨渌水를 100餘里 거슬러 올라가 泊灼城 남쪽 40里 떨어진 곳에 군영을 만들고 所夫孫 및 高文이 이끄는 高句麗軍 3만인과 싸워 승리하였다.¹⁷⁾ 『新唐書』에서 薛萬徹 등이 曷山, 泊灼城 등을 공격하고 후자에서 所夫孫을 참하고 高句麗軍 3만을 격파한 후 돌아왔다고 기록하였다.¹⁸⁾ 『舊唐書』에서 薛萬徹 등의 전과를 간단히 기록하였다.¹⁹⁾ 한편 四月에 烏胡鎮將 石神感(『資治通鑑』에는 古神感으로 표기)이 바다를 통해 高句麗를 공격하였다. 그는 步騎 5천을 거느리고 曷山에서 高句麗軍 800여 인을 살해하고 高句麗軍 1만여 인의 야습을 대파한 후 돌아왔다.²⁰⁾ 이는 『新唐書』에 없고 『資治通鑑』에 보인다.²¹⁾

16) 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二年正月條, 11406, “二十二年正月, 詔授右武衛大將軍薛萬徹為靑丘道行軍大總管, 右衛將軍裴行大為副, 率兵三萬餘人, 並樓船戰艦, 自萊州泛海以擊高麗(萬徹入鴨綠水, 俘獲甚衆).”

17) 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二年六月條, 11406-11407, “是月, 靑丘道軍師薛萬徹渡海入鴨渌水百餘里, 至泊灼城南四十里止營, 高麗襲懼, 並棄邑居而遁. 泊灼城主所失孫率步騎萬餘人來拒官軍, 萬徹遣右衛將軍裴行方領步卒, 折衝尉羅文合為援軍繼進, 萬徹及諸軍乘之, 賊大潰. 追奔百餘里, 及於陣, 所失孫進兵圍之. 泊灼城因山設險, 阻鴨渌水以為固. 攻之未拔, 高麗遣將高文率馬骨, 安地諸城兵三萬餘人來援, 分置兩陣. 萬徹分軍以當之, 鋒刃才接而賊潰, 俘獲且盡而還.”

18)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5, “二十二年, 詔右武衛大將軍薛萬徹為靑丘道行軍大總管, 右衛將軍裴行方副之, 自海道入. 部將古神感與虜戰曷山, 虜潰; 虜乘暝襲我舟, 伏兵破之. 萬徹度鴨渌, 次泊灼城, 拒四十里而舍. 虜懼, 皆棄邑居去. 大酋所夫孫拒戰, 萬徹擊斬之, 遂圍城, 破其援兵三萬, 乃還.”

19) 舊唐書 卷199上 東夷·高麗傳, 5323, “二十二年, 又遣右武衛將軍薛萬徹等往靑丘道伐之, 萬徹渡海入鴨綠水, 進破其泊灼城, 俘獲甚眾.”

20) 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二年四月條, 11406, “四月, 烏

貞觀 21년(647)과 貞觀 22년(648) 唐兵의 高句麗 침략 기사를 분석하면, 李勣이 지휘하는 唐兵이 육로인 新城道를 통해 南蘇 등 성을 공격한 것을 제외하면 唐兵은 세 차례나 전함을 타고 바다를 건너 高句麗의 해안 지역과 鴨綠水 일대를 공격하였다.

『冊府元龜』와 『資治通鑑』의 기록만 보면 高句麗를 자주 공격하여 高句麗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여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고 민심 이반을 꾀한 정책 때문에 이전보다 적은 병력으로 高句麗를 자주 공격한 것처럼 기록하였다. 그러나 太宗이 高句麗 親征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후에 주변국들과 전쟁을 벌였다. 貞觀 19년(645) 十二月에 薛延陀가 夏州를 공격했으나 執失思力이 격파하였다.²²⁾ 다음 해인 貞觀 20년(646)에 夏州都督 喬師望이 薛延陀와 싸워 승리하였다.²³⁾ 太宗은 같은 해 六月 江夏王 道宗과 李勣을 보내 薛延陀를 공격하였고²⁴⁾ 崔敦禮와 李勣이 薛延陀를 鬱督軍山에서 격파했으며²⁵⁾ 七月에 李世勣이 薛延陀를 격파하였

胡鎮將石神感率兵浮海直指高麗，領步騎五千拒戰於易山，短兵纔接，其眾大潰，斬首虜八百餘人。其夜賊兵萬餘襲神感之船，神感設伏以待之，賊不覺，奮擊，大破之而還。”

21) 資治通鑑 卷199 唐紀15 太宗貞觀二十二年四月條, 6256, “甲子, 烏胡鎮將古神感將兵浮海擊高麗, 遇高麗步騎五千, 戰於易山, 破之。其夜, 高麗萬餘人襲神感船, 神感設伏, 又破之而還。”

22) 新唐書 卷2 太宗紀 貞觀十九年十一月條, 44쪽, “十二月戊申, 次并州。己未, 薛延陀寇夏州, 左領軍大將軍執失思力敗之。”

23) 新唐書 卷2 太宗紀 貞觀二十年正月辛未條, 45쪽, “二十年正月辛未, 夏州都督喬師望及薛延陀戰, 敗之。”

24) 新唐書 卷2 太宗紀 貞觀二十年六月乙亥條, 45쪽, “六月乙亥, 江夏郡王道宗·李世勣伐薛延陀。”

25) 舊唐書 卷3 太宗紀 下 貞觀二十年六月條, 58-59쪽, “六月, 遣兵部尚書·固安公崔敦禮, 特進·英國公李勣擊破薛延陀於鬱督軍山北, 前後斬首五千餘級, 虜男女三萬餘人。”

다.²⁶⁾

唐太宗은 貞觀 21년(647) 十一月에 阿史那社爾, 契必何力, 郭孝恪, 楊弘禮를 보내 쿠차를 공격하였다.²⁷⁾ 貞觀 22년(648) 四月에 松州蠻을 격파하였다.²⁸⁾ 같은 해 五月에 王玄策을 보내 那伏帝國을 공격하였다.²⁹⁾ 八月에 執失思力이 金山에서 薛延陀 餘部를 정벌하였고³⁰⁾ 阿史那社爾은 쿠차를 격파하였으며³¹⁾ 閏月에 쿠차를 정복하였다.³²⁾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貞觀 19년부터 22년까지 唐은 북방의 薛延陀, 중앙아시아의 쿠차, 서남쪽의 松州蠻 등과 전쟁을 벌였다. 貞觀 21-22년에 高句麗를 공격할 때 唐은 동시에 두세 곳에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따라서

26) 新唐書 卷2 太宗紀 貞觀二十年七月辛亥條, 45쪽, “七月辛亥, 疾愈. 李世勣及薛延陀戰, 敗之.”

27) 舊唐書 卷3 太宗紀 下 貞觀二十一年十二月戊寅條, 60쪽, “十二月戊寅, 左驍衛大將軍阿史那社爾·右驍衛大將軍契苾何力·安西都護郭孝恪·司農卿楊弘禮為崑山道行軍大總管, 以伐龜茲.”; 新唐書 卷2 太宗紀 貞觀二十一年十二月戊寅條, 46쪽, “十二月戊寅, 左驍衛大將軍契苾何力為崑丘道行軍大總管, 率三總管兵以伐龜茲.”

28) 舊唐書 卷3 太宗紀 下 貞觀二十二年四月條, 61쪽, “四月甲寅, 磧外蕃人爭牧馬出界, 上親臨斷決, 然後咸服. 丁巳, 右武候將軍梁建方擊松外蠻, 下其部落七十二所.”; 新唐書 卷2 太宗紀 貞觀二十二年四月丁巳條, 47쪽, “四月丁巳, 松州蠻叛, 右武候將軍梁建方敗之.”

29) 舊唐書 卷3 太宗紀 下 貞觀二十二年五月庚子條, 61쪽, “五月庚子, 右衛率長史王玄策擊帝那伏帝國, 大破之, 獲其王阿羅那順及王妃·子等, 虜男女萬二千人·牛馬二萬餘以詣闕.”

30) 新唐書 卷2 太宗紀 貞觀二十二年八月條, 47쪽, “辛未, 執失思力伐薛延陀餘部于金山.”

31) 新唐書 卷2 太宗紀 貞觀二十二年十月己巳條, 47쪽, “己巳, 阿史那社爾及龜茲戰, 敗之.”

32) 舊唐書 卷3 太宗紀 下 貞觀二十二年閏月條, 61-62쪽, “閏月丁丑朔, 崑山道總管阿史那社爾降處密·處月, 破龜茲大撥等五十城, 虜數萬口, 執龜茲王訶黎布失畢以歸, 龜茲平, 西域震駭.”

高句麗와의 전쟁에 전력을 기울일 수 없었다. 『冊府元龜』와 『資治通鑑』에서 살펴본 치고빠지기 전략은 唐의 동시다발적인 전쟁 때문에 많은 군사를 보낼 수 없었던 상황에서 취해진 작전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645년 唐太宗의 高句麗 親征 때의 손실이다. 이때 전사자는 1,200명이고 張亮의 수군 7만 명 가운데 수백인이 익사하였지만 八駄와 戰馬의 70-80%를 잃었다고 기록하였다.³³⁾ 당시 騎兵의 수는 알 수 없으나 駄馬의 수는 추정이 가능하다. 折衝府의 최소 단위, 즉 10명으로 구성된 火에 駄馬를 구비해야 했다. 『唐六典』 卷25 「諸衛府」 諸府條의 細注에 “처음에 8 마리의 駄馬를 두었으나 나중에 6 마리로 바꾸었다”라고 기록하였다.³⁴⁾ 따라서 “八駄”는 8마리의 駄馬를 가리키며 1火가 갖추어야 하는 말의 수이다. 숫자를 알 수 없는 騎兵을 제외하고 군량이나 장비를 수송해야 하는 駄馬가 70-80% 죽었다는 기록에서 보급을 위해 사용해야 할 말과 노새 등 가축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唐이 高句麗 침공에 대량의 군사와 물자를 투입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III. 唐의 인력·물자 동원

貞觀 21년(647) 三月 李勣·孫貳郎·鄭仁泰의 동선을 살펴보면 3천 명을 거느리고 營州를 거쳐 營州都督府의 兵馬와 함께 高句麗의 영토로

33)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83쪽, “初, 太宗軍及李勣之入遼也, 將十萬人, 各有八駄, 兩軍戰馬萬匹. 及還, 戰士死者一千二百人, 其八駄及戰馬死十七八. 張亮水軍七萬人泛海, 遭風溺死者數百人. 凡徙遼·蓋·巖三州戶口入內地, 前後七萬人.”

34) 唐六典 卷25 諸衛府 諸府條‘火備六駄之馬’句細注, 644쪽, “初置為八, 後改為六.”

쳐들어갔다. 『通典·州郡典』에 기록된 鎮兵 49萬명이 軍倉의 190萬石을 소비했던 기사³⁵⁾에서 병사 1명이 1년에 소비하는 곡물은 약 3.88石(190萬石÷49萬人)이다.³⁶⁾ 따라서 李勣 등 3천 명은 三月부터 五月까지 3개월 동안 소비한 식량은 2,910石에 불과하다. 그러나 육로로 식량을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정규군인 3천의 2배인 9천 명의 운송인력이 필요하였다.³⁷⁾ 河北道の 戶口는 369,730戶, 1,589,320口였으므로³⁸⁾ 河北道에서 9천 명을 징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幽州와 營州 사이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에³⁹⁾ 幽州 이남의 지역에서 동원된 9천 명의 백성들과 병사들이 幽州에서 遼水(遼河)까지 1,690里를 행군해야 하는데 걸어서 약 34일, 수레를 이용하면 57일 걸렸다.⁴⁰⁾ 이는 편도인데, 왕복 거리는 최소 68일, 최대 114일로 65일을 초과했으므로 규정에 따라 운송 인력에 租庸調를 면제해야 했다(관련 규정은 후술함). 게다가 이들은 三月-五月의 농사철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농사를 망쳤으므로 1년 租庸調를 면제받았고 해도 이들과 가족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는 적지 않았다.

牛進達과 李海岸이 貞觀 21년(647), 薛萬徹과 裴行大가 貞觀 22년(648) 출발한 곳은 모두 萊州였다. 牛進達과 李海岸은 1만 명, 薛萬徹과

35) 通典 卷172 州郡2 序目下, 4479, “又於邊境置節度·經略使, 式遏四夷. 大凡鎮兵四十九萬人, 戎馬八萬餘疋. 每歲經費: 衣賜則千二十萬疋段, 軍倉則百九十萬石, 大凡千二百十萬(開元·天寶每歲邊用不過二百萬).” 舊唐書 地理志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다(舊唐書 卷38 地理志1, 1385).

36) 崔珍烈. 2022, 148.

37) 崔珍烈. 2022, 150-152.

38) 梁方仲. 1980, 78, 甲表23 唐貞觀十三年各道戶口數·平均戶口數及各道戶口數的比重.

39) 이는 太宗이 韋挺에게 한 말에서 알 수 있다(舊唐書 卷77 韋挺傳, 2670, “太宗甚悅, 謂挺曰: ‘幽州以北, 遼水二千餘里, 無州縣, 軍行資糧無所取給, 卿宜為此使. 但得軍用不乏, 功不細矣.’”).

40) 崔珍烈. 2022, 152-154.

裴行大가 3만 명을 데리고 萊州에서 출발하였다. 軍船에 병사들과 함께 식량도 싣고 가야 했으므로 河南道 등지에서 萊州로 물자를 실어와야 했다. 『通典·州郡典』에 기록된 鎮兵 49만 명이 軍倉의 190萬石을 소비했던 기사⁴¹⁾에서 병사 1명이 1년에 소비하는 곡물이 약 3.88石(190萬石÷49萬人)이다.⁴²⁾ 牛進達과 李海岸의 1만 唐兵이 貞觀 21년(647) 三月부터 七月까지 高句麗의 해안 일대에서 작전했는데, 최소 5개월의 식량을 지니고 있었다. 즉 唐兵은 최소 16,667石의 식량을 휴대하였다.⁴³⁾ 薛萬徹과 裴行大가 貞觀 22년(648) 지휘한 3만의 唐兵이 正月부터 七月까지 대략 7달 동안 高句麗의 鴨渌水 등지에서 작전하였다. 이들이 휴대한 7개월의 식량이 최소 67,900石이다. 물론 여기에 이들이 귀향하는 사이 소모하는 식량이 더 있었지만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唐代 河運과 海運 모두 일반적으로 배 1척에 1千石의 곡물을 싣었다.⁴⁴⁾ 따라서 16,667石을 운반하기 위해 약 17척, 67,900石을 운반하기 위해 약 68척의 運船이 필요하였다.

貞觀 13년 萊州의 인구는 11,568戶와 63,396口였는데,⁴⁵⁾ 萊州와 山東半島에 해당하는 주변의 淄州(6,323戶, 34,425口),⁴⁶⁾ 青州(10,658戶, 56,317

41) 通典 卷172 州郡2 序目下, 4479, “又於邊境置節度·經略使, 式遏四夷. 大凡鎮兵四十九萬人, 戎馬八萬餘疋. 每歲經費: 衣賜則千二十萬疋段, 軍倉則百九十萬石, 大凡千二百十萬(開元·天寶每歲邊用不過二百萬).” 『舊唐書』 「地理志」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다(舊唐書 卷38 地理志1, 1385).

42) 崔珍烈. 2022, 148.

43) 물론 귀향할 때까지 필요한 식량도 있었겠지만, 귀향 날짜를 알 수 없으므로 본문의 계산에서 생략하였다.

44) 王賚時. 1998, “論唐代的造船業” 中國史研究 1998-2, 76쪽.

45) 舊唐書 卷38 地理志1 十道郡國1·河南道·萊州條, 1455-1456, “舊領縣六: 掖·黃·文登·昌陽·即墨·膠水, 戶一萬一千五百六十八, 口六萬三千三百九十六.”

口),⁴⁷⁾ 齊州(11,593戶, 61,771口),⁴⁸⁾ 密州(3,580戶, 28,593口),⁴⁹⁾ 沂州(4,652戶, 23,900口),⁵⁰⁾ 濟州(6,905戶, 34,510口),⁵¹⁾ 鄆州(4,141戶, 21,692口),⁵²⁾ 濮州(8,028戶, 44,135口),⁵³⁾ 曹州(99,244, 54,981口),⁵⁴⁾ 兗州(9,366戶, 15,428口)⁵⁵⁾의 戶口는 176,058戶, 439,148口이다.⁵⁶⁾ 唐代 1丁이 매년 租粟 2石을 납부했으므로⁵⁷⁾ 인구의 1/4에게서 租粟을 거둔다고 하면⁵⁸⁾ 이 11州에서

46) 舊唐書 卷38 地理志1 十道郡國1·河南道·淄州條, 1454, “舊領縣五, 戶六千三百二十三, 口三萬四千四百二十五.”

47) 舊唐書 卷38 地理志1 十道郡國1·河南道·青州條, 1452-1453, “舊領縣七, 戶一萬六百五十八, 口五萬六千三百一十七.”

48) 舊唐書 卷38 地理志1 十道郡國1·河南道·齊州條, 1451, “舊領縣八, 戶一萬一千五百九十三, 口六萬一千七百七十一.”

49) 舊唐書 卷38 地理志1 十道郡國1·河南道·密州條, 1450, “舊領縣四, 戶三千五百八十, 口二萬八千五百九十三.”

50) 舊唐書 卷38 地理志1 十道郡國1·河南道·沂州條, 1449, “舊領縣五, 戶四千六百五十二, 口二萬三千九百.”

51) 舊唐書 卷38 地理志1 十道郡國1·河南道·鄆州條, 1443, “濟州舊領縣五, 戶六千九百五, 口三萬四千五百一十.”

52) 舊唐書 卷38 地理志1 十道郡國1·河南道·濟州條, 1442-1443, “舊領縣三: 須昌·鄆城·壽張; 戶四千一百四十一, 口二萬一千六百九十二.”

53) 舊唐書 卷38 地理志1 十道郡國1·河南道·濮州條, 1442, “舊領縣五, 戶八千六百二十八, 口四萬四千一百三十五.”

54) 舊唐書 卷38 地理志1 十道郡國1·河南道·曹州條, 1442, “舊領縣五, 戶九千二百四十四, 口五萬四千九百八十一.”

55) 舊唐書 卷38 地理志1 十道郡國1·河南道·兗州條, 1446, “舊領縣八, 戶九千三百六十六, 口一萬五千四百二十八.”

56) 登州는 貞觀 13년의 戶口가 누락되었기 때문에(舊唐書 卷38 地理志1 十道郡國1·河南道·登州條, 1446, “漢東萊郡之黃縣. 如意元年, 分置登州, 領文登·牟平·黃三縣, 以牟平為治所. 神龍三年, 改黃縣為蓬萊縣, 移州治於蓬萊. 天寶元年, 以登州為東牟郡. 乾元元年, 復為登州. 天寶領縣四, 戶二萬二百九十八, 口一十萬八千九百. 在京師東三千一百五十里, 至東都二千七十一里.”) 본문의 합계에서 제외하였다.

57) 唐六典 卷3 尚書戶部, 76, “課戶每丁租粟二石. 其調隨鄉土所產, 綾·絹·絁各二

거둘 수 있는租는 219,574石이다. 高句麗 원정군의 식량인 최소 16,667石과 67,900石의 식량을 萊州와 山東半島 일대 州에서 거둔 징발하고 운송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貞觀 22년(648) 四月 烏胡鎮將 石神感이 步騎 5천을 거느리고 高句麗를 공격한 기사가 주목된다. 胡三省은 烏胡鎮을 바다에 있는 ‘烏湖島’에 설치된 鎮으로 해석하였다.⁵⁹⁾ 『新唐書』 「地理志」에 따르면, 登州에서 동북쪽으로 항해하여 大謝島·龜歆島·末島를 거쳐 烏湖島에 도착하는데 300리나 걸렸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烏湖海를 건너 馬石山 동쪽의 都里鎮까지 200리를 항해해야 했다.⁶⁰⁾ 貞觀 18년 河南道의 米糧을 저장했던 古大人城은 黃縣에서 23리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⁶¹⁾ 烏胡鎮과 다른 곳이다.⁶²⁾ 唐은 군량을 해상에 저장했던 古大人城과 별도로 高句麗와 가까운 섬에 烏胡鎮을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烏胡鎮에 石神感이 이끈 5천의 보병과 기병이 주둔하였다. 烏湖島가 5천 명의 군인이 주둔할

丈, 布加五分之一, 輸綾·絹·絁者綿三兩, 輸布者麻三斤, 皆書印焉.”

58) 남녀 성비를 1:1, 丁(丁男과 中男)과 老小를 1:1로 가정한 수치이다. 실제로는 稅役을 부담하는 성인남성(丁)의 수가 老小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59) 資治通鑑 卷199 唐紀15 太宗貞觀二十二年四月甲子條胡註, 6256, “烏胡鎮當置於海中烏胡島. 自登州東北海行, 過大謝島·龜歆島·淤島而後至烏湖島; 又三百里北渡烏湖海.”

60) 新唐書 卷43下 地理志7下 靺廼州, 1147, “登州東北海行, 過大謝島·龜歆島·末島·烏湖島三百里. 北渡烏湖海, 至馬石山東之都里鎮二百里.”

61) 冊府元龜 卷498 帝王部 漕運, 5659, “太宗貞觀十七年時征遼東, 先遣太常卿韋挺于河北諸州徵軍糧, 貯於營州. 又令太僕少卿蕭銳於河南道諸州轉糧入海, 至十八年八月, 銳奏稱海中古大人城, 西去黃縣二十三里, 北至高麗四百七十里地, 多甜水. 山島接連, 貯納軍糧, 此為尤便. 詔從之. 於是自河南道運轉米糧, 水陸相繼渡海, 軍糧皆貯此.”

62) 한 연구에서 古大人城이 있는 섬을 烏湖島(현재의 山東省 南·北 隍城島)라고 비정하였다(楊希義·于汝波. 1998, 252). 그러나 登州에서 古大人城과 烏湖島까지의 거리가 10배 차이가 나므로 古大人城이 烏湖島에 있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수 있을 만큼 큰 섬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섬에 鎭을 설치하고 최소 5천 명의 군사가 먹을 식량과 5천 명을 실어나를 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烏胡鎭의 운영 비용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貞觀 22년(648) 세 차례에 걸친 당의 해상 침공사례에 唐의 선박 수가 기록되지 않아 선박 제조비용이나 동원인력을 계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貞觀 21-22년 高句麗와의 국지전에 필요한 병력과 군량 징발 및 운수와 병행하여 唐太宗은 전함 건조를 지시하였다.

“[貞觀 21년]九月 宋州刺史 王波利와 中郎將 丘孝忠을 보내 江南 12州를 징발하여 入海大船과 鰲船 350艘를 만들어 장차 高麗를 정벌하려 하였다.”⁶³⁾

위의 인용문은 『冊府元龜』 「外臣部」의 기록인데, 『資治通鑑』에서 貞觀 21년 八月 戊戌日(647. 10. 18.)의 일로 기록하였다.⁶⁴⁾ 胡三省은造船에 동원된 江南 12州를 宣·潤·常·蘇·湖·杭·越·台·婺·括·江·洪 12州라고 열거하였다.⁶⁵⁾ 胡三省注에 열거된 州名에 따라 江南 12州의 인구와 배를 만드는 요역의 관계를 검토해 보자.

63) 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一年九月條, 11405, “九月, 遣宋州刺史王波利·中郎將丘孝忠發江南十二州, 造入海大船及鰲船三百五十艘, 將征高麗.”

64)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太宗貞觀二十一年八月戊戌條, 6249, “戊戌, 敕宋州刺史王波利等發江南十二州工人造大船數百艘, 欲以征高麗.”

65)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太宗貞觀二十一年八月戊戌條胡註, 6249, “十二州: 宣·潤·常·蘇·湖·杭·越·台·婺·括·江·洪也.”

〈표 1〉 貞觀 21년 배 건조를 위해 징발한 江南 12州의 인구⁶⁶⁾

州名	縣數	戶數	口數	州名	縣數	縣數	口數
宣州	8	22,537	95,753	越州	5	25,890	124,010
潤州	5	25,361	127,104	台州	2	6,583	35,383
常州	4	21,182	111,606	婺州	5	37,819	228,990
蘇州	4	11,859	54,471	括州(處州)	4	12,899	101,606
湖州	5	14,135	76,430	江州	3	6,360	25,599
杭州	5	30,571	153,720	洪州	4	15,456	74,044

劍南道の 사례에서 大船 1척을 만드는 庸絹이 2,236匹이었다.⁶⁷⁾ 『唐六典』에 성인남성(丁)이 20일 동안 徭役을 해야 하는데 徭役이 없으면 대신 庸을 매일 3尺 납부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⁶⁸⁾ 이를 20일로 계산하면 徭役의 代役에 60尺(=6丈)의 絹을 부담해야 했다. 『唐六典』에서 羅·錦·綾·絹·紗·縠·絁·紬는 4丈을 1匹로 정하였으므로⁶⁹⁾ 60尺의 庸絹은 1.5匹에 해당한다. 따라서 劍南道 사람들이 大船 1척을 만드는데 쓴 2,236匹은 약 1,491인의 20일 노동력이다. 이 가격과 노동력이 江南 12州에도 적용된다고 하면 江南 12州 사람들이 만들어야 하는 350척의 배는 20일 동안 521,734명의 노동력(徭役)에 해당한다. 〈표 1〉에서 열거한 江南 12州의 戶數는 230,652戶(江南道の 57.1%), 口數는 1,208,716口(江南道の 61.7%)이다. 521,734명은 강남 12州 인구의 43.2%이다. 남녀 성별을 1:1로 간주하

66) 梁方仲, 1980, 甲表24 唐貞觀十三年各道戶口數及每縣平均戶數和.每戶平均口數, 82-83; ; 崔珍烈, 2023, 14, 〈표 1〉 貞觀 21년 배 건조를 위한 江南 12州의 인구.

67) 資治通鑑 卷199 唐紀15 太宗貞觀二十二年九月條, 6262, “大船一艘, 庸絹二千二百三十六匹.”

68) 唐六典 卷3 尚書戶部, 76, “丁歲役二旬, 無事則收其庸, 每日三尺(布加五分之一).”

69) 唐六典 卷3 尚書戶部 金部郎中條 細注, 82, “羅·錦·綾·絹·紗·縠·絁·紬之屬以四丈爲匹, 布則五丈爲端, 綿則六兩爲屯, 絲則五兩爲絢, 麻乃三斤爲紵.”

면 사실상 江南 12州의 남성 거의 대부분을 동원해야 할당된 350척을 만들 수 있었다. 만약 唐代에 15일 추가 요역에 동원되면 調, 30일 추가 동원되면 租調를 모두 면제하는 기준⁷⁰⁾을 적용하여 3州의 성인남성에게 30일의 노동을 추가하면 50일의 노동력은 絹 3.75필에 해당하므로 배 1척을 만드는데 약 597인의 50일 노동력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350척은 약 138,950인의 50일 노동력, 또는 138,950인의 租庸調 세액 전체에 해당한다. 160,534인은 江南 12州 인구의 11.5%에 해당한다. 성비를 1:1로 간주하면 남성의 23%에 해당한다. 唐代 租庸調가 丁 즉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므로 350척의 배를 만들기 위해 138,950명의 50일 노동력을 동원해야 했지만 대신 江南道에서 거둘 수 있는 재정 수입의 23%가 감소했다.⁷¹⁾

또 「強偉墓誌」에 따르면 貞觀 21년⁷²⁾ 虞部員外郎 唐遜이 海舩 1천艘를 만들 때 부관으로 참여하였다. 또 宋州刺史 王波利가 海船을 만들 때 부관으로 차출되었다.⁷³⁾ 唐遜이 海船 1천艘를 건조한 기사는 『冊府元龜』와 『資治通鑑』 등 사서에 보이지 않지만 王波利의 부관으로 일한 기사는 위의 인용문과 일치한다. 따라서 전자의 기사도 사서에 보이지 않지만 貞觀 21년에 발생한 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貞觀 21년에 1천艘를 추가로 만들었다.⁷⁴⁾ 앞에서 배 1척을 만드는데 약 597명의 50일 노동력(租庸調

70) 唐六典 卷3 尚書戶部, 76, “有事而加役者, 旬有五日免其調, 三旬則租·調俱免.”

71) 崔珍烈. 2023, 14-15.

72) 強偉墓誌에서 “十一年”이라고 표기했는데, “二十一年”의 誤記이다.

73) □□□□□□輕車都尉強君(強偉)墓誌銘并序, 唐代墓誌彙編 麟德026, 413, “至[貞觀]十八年, 將作大匠閻立德江南造船, 召爲判佐. 十一年副虞部員外郎唐遜造海舩一千艘. 其年勅差副宋州刺史王波利更造海船.” 이하 ‘「強偉墓誌」’로 약칭.

74) 이 1천艘의 배는 貞觀 22년 越州都督府와 婺州·洪州 등에 제작하라고 한 海船과 雙舩 1,100艘(資治通鑑 卷199 唐紀15 太宗貞觀二十二年八月丁丑條, 6261)와 선박의 수가 비슷하다. 그래서 強偉가 虞部員外郎 唐遜과 만든 배 1,000艘가 貞觀

1년분에 해당)이 동원되었으므로, 1천 艘 건조는 596,267명의 50일 노동력을 동원해야 만들 수 있다. 또는 596,267명의 1년 租庸調 면제액에 해당한다. 强偉가 虞部員外郎 唐遜과 함께 작업한 장소가 「强偉墓誌」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작업 장소를 알 수 없다. 唐太宗 貞觀 13년 전국 인구가 12,351,681명이므로⁷⁵⁾ 貞觀 21년에도 인구가 같았다고 가정하면, 전체 인구의 약 4.83%이고 남녀 성비와 성인·노약자 비율이 1:1이라면 성인 남성의 19.31%를 동원해야 했다.

이처럼 唐太宗이 대규모 선박을 건조했던 이유 중 하나가 唐太宗의 高句麗 親征 당시의 피해 때문이었다. 『冊府元龜』 「帝王部」 親征門에서 張亮의 수군 7만 명 가운데 수백 명이 익사했다고 기록하였다.⁷⁶⁾ 『新唐書』 「高麗傳」에서도 수백 명만 손실이었다고 기록하였다.⁷⁷⁾ 이 기사만 보

22년 건조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强偉는 선박 건조 이후 兵部員外郎 裴明禮와 함께 遼碭, 즉 高句麗와의 국경 지역으로 군량을 운송하였다(强偉墓誌, 413, “十一年副虞部員外郎唐遜造海舡一千艘. 其年勅差副宋州刺史王波利更造海船. 事異畢副兵部員外郎裴明禮運糧遼碭.”). 따라서 이때 만들어진 배가 貞觀 22년 전쟁에 투입되었다고 봐야한다. 왜냐하면 貞觀 22년(648) 正月에 薛萬徹과 裴行大가 3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萊州에서 바다를 건너 高句麗를 공격하였다(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二年正月條, 11406). 같은 해 四月에 烏胡鎮將 石神感(資治通鑑에는 古神感으로 표기)이 步騎 5천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高句麗를 공격하였다(冊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唐太宗貞觀二十二年四月條, 11406). 烏胡鎮은 唐의 山東半島과 高句麗 사이의 바다에 있는 섬이었으므로, 烏胡鎮에 운송할 배와 烏胡鎮에서 高句麗를 공격할 배가 필요했다. 즉 35,000인의 군사와 군량을 수송할 배가 필요했는데, 이 배는 전해인 貞觀 21년에 건조한 海船였을 가능성이 크다.

75) 梁方仲. 1980, 甲表23 唐貞觀十三年各道戶口數·平均戶口數及各道戶口數的比重, 78.

76)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83쪽, “張亮水軍七萬人泛海, 遭風溺死者數百人.”

77)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3-6194쪽, “船師七萬, 物故亦數百.”

면 唐의 수군이 큰 피해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冊府元龜』 「將帥部」 逗撓·張文幹條에 따르면, 平壤道行軍總管 張文幹이 바다로 高句麗로 진격했으나 배가 대부분 전복되어 작전 기일에 늦어 참형되었다.⁷⁸⁾ 張文幹의 참형 기사는 『新唐書』 「太宗紀」에만 기록되었다.⁷⁹⁾ 4만 수군을 지휘한 平壤道行軍大總管 張亮 아래에 冉仁德·劉英行·張文幹·龐孝泰·程名振 5명이 總管으로 임명되었다.⁸⁰⁾ 이때 唐의 수군이 500척이었으므로⁸¹⁾ 5명의 총관이 100척의 배를 지휘했을 것이므로 張文幹이 거느린 100척의 대부분이 파손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파손된 배를 보충하기 위해 새로 戰艦 또는 수송용 선박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太宗은 貞觀 21년 正月에 다음 해 二月 泰山 封禪 의식을 거행하겠다

78) 冊府元龜 卷445 將帥部106 逗撓·張文幹條, 5021쪽, “張文幹行撫州刺史·平壤道行軍總管. 貞觀十九年, 征遼, 廻次易州. 文幹以渡海多覆舟舫, 詔迫逗遛不赴, 斬之.”

79) 新唐書 卷2 太宗紀 貞觀十九年十一月癸未條, 44쪽, “癸未, 平壤道行軍總管張文幹有罪, 伏誅.”

80)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78쪽, “[貞觀十八年十一月]甲午, 以光祿大夫·刑部尚書·鄜國公張亮為使持節平壤道行軍大總管, 以左領軍將軍·武水縣伯常何·瀘州都督·戴國公左難當為副總管, 汾州刺史·黃國公冉仁德·眉州刺史·下傳縣男劉英·銀青光祿大夫·行撫州刺史張文翰·雲麾將軍·行中郎將龐孝恭·右驍衛將軍·東平郡公程名振並為行軍總管以隸之, 率江淮嶺嶺勁卒四萬, 長安·洛陽召募三千, 戰艦五百艘, 自萊州泛海趣平壤.”;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89쪽, “帝幸洛陽, 乃以張亮為平壤道行軍大總管, 常何·左難當副之, 冉仁德·劉英行·張文幹·龐孝泰·程名振為總管, 帥江·吳·京·洛募兵凡四萬, 吳艘五百, 泛海趣平壤.”

81)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78쪽, “[貞觀十八年十一月]甲午, 以光祿大夫·刑部尚書·鄜國公張亮為使持節平壤道行軍大總管, 以左領軍將軍·武水縣伯常何·瀘州都督·戴國公左難當為副總管, 汾州刺史·黃國公冉仁德·眉州刺史·下傳縣男劉英·銀青光祿大夫·行撫州刺史張文翰·雲麾將軍·行中郎將龐孝恭·右驍衛將軍·東平郡公程名振並為行軍總管以隸之, 率江淮嶺嶺勁卒四萬, 長安·洛陽召募三千, 戰艦五百艘, 自萊州泛海趣平壤.”

고 선언하였다.⁸²⁾ 四月에 終南山에 太和宮을 건설하고 翠微宮으로 이름을 바꾸었다.⁸³⁾ 漆垣에 宜君縣에 玉華宮을 건설하였다.⁸⁴⁾ 玉華宮을 검소하게 만들어 皇帝가 거주하는 殿만 기와로 덮었고 나머지는 茅茨로 꾸몄지만 건설비가 巨億을 헤아렸다.⁸⁵⁾ 巨億의 사전적 의미가 매우 많다는 뜻인데, 최소 1억 文이라고 보아도 두 宮의 건설비는 2억 文을 넘으며 궁전의 건설비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八月에 河北의 홍수로 泰山 封禪을 중지한다고 선언하였다.⁸⁶⁾ 兩唐書 本紀와 「五行志」에서 이때 홍수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즉 高句麗를 침공한 貞觀 21년에 이미 두 개의 궁전을 지으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河北 등 黃河 중하류 지역이 수해 지역이 되어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재정수입이 대폭 줄어들었을 것이다.

또 唐은 突厥의 북쪽에서 위구르 부족까지 66개의 驛을 만들었다.⁸⁷⁾ 이는 북아시아 유목민을 지배하는데 필요한 조치였지만 驛을 설치하고

82) 舊唐書 卷3 太宗紀 下 貞觀二十一年正月丁酉條, 59쪽, “丁酉, 詔以來年二月有事泰山.”; 新唐書 卷2 太宗紀 貞觀二十一年正月丁酉條, 45쪽, “丁酉, 詔以來歲二月有事于泰山.”

83) 舊唐書 卷3 太宗紀 下 貞觀二十一年四月乙丑條, 59쪽, “夏四月乙丑, 營太和宮於終南之上, 改為翠微宮.”; 『新唐書』 卷2 「太宗紀」 貞觀二十一年四月乙丑條, 46쪽, “四月乙丑, 作翠微宮.”

84) 舊唐書 卷3 太宗紀 下 貞觀二十一年七月庚子條, 60쪽, “秋七月庚子, 建玉華宮於宜君縣之鳳凰谷.”

85) 資治通鑑 卷198 唐紀 14 貞觀二十二年二月戊午條, 6253쪽, “上營玉華宮, 務令儉約, 惟所居殿覆以瓦, 餘皆茅茨; 然備設太子宮百司苞山野路, 所費已巨億計.”

86) 舊唐書 卷3 太宗紀 下 貞觀二十一年八月壬戌條, 60쪽, “八月壬戌, 詔以河北大水, 停封禪.”; 『新唐書』 卷2 「太宗紀」 貞觀二十一年八月條, 46쪽, “八月, 泉州海溢. 壬戌, 停封泰山.”

87) 舊唐書 卷3 太宗紀 下 貞觀二十一年條, 60쪽, “又於突厥之北至于迴紇部落, 置驛六十六所, 以通北荒焉.”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 또 唐太宗은 貞觀 9년(635)에 吐谷渾, 貞觀 14년(640) 高昌, 貞觀 22년(648) 處密·處月·쿠차를 각각 정복한 후에 安西四鎮을 설치하였다. 唐은 정복지에 山東의 丁男을 戍卒로 징발하고 繒帛을 軍資로 삼았다. 그리고 屯田을 설치했으며 軍에 많으면 1만 명, 적으면 1천 명을 주둔시켰고 烽戍邏卒을 萬里에 배치하였다.⁸⁸⁾ 唐代 봉수는 30里마다 봉수대를 설치하며 봉수마다 6명을 두었다. 그러나 「唐 伊吾軍屯田文書」에는 봉수대에 2-3명을 배치했다고 기록하였다.⁸⁹⁾ 규정상 1萬里에 30里 간격으로 봉수대를 세운다면 약 333개의 봉수대를 세워야 하고 6명을 배치하면 1,998명이 필요했다. 출토문헌처럼 2-3명을 배치하면 666-999명을 봉수대에 배치했다. 여기에 군대에 주둔한 사람을 포함하면 징발된 山東의 丁男 수는 더욱 늘어난다. 요컨대 山東, 즉 河南·河北 2道 등의 丁男과 繒帛을 서쪽 변경으로 보내 군사시설에 배치하였기 때문에 高句麗와 가까운 河南·河北 2道の 백성들은 高句麗와의 전쟁 비용뿐만 아니라 서쪽 변경의 주둔비용 및 군역이 요역까지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貞觀 21-22년 高句麗와의 전쟁의 인력과 물자를 주로 담당했을 河南·河北 2道 백성들의 부담이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貞觀 21-22년 高句麗 공격에 투입한 군량과 선박 제조 비용은 적다고 볼 수 없었다.

88) 舊唐書 卷196 上 吐蕃傳 上, 5236쪽, “貞觀中, 李靖破吐谷渾, 侯君集平高昌, 阿史那社爾開西域, 置四鎮. 前王之所未伏, 盡為臣妾, 秦·漢之封域, 得議其土境耶! 於是歲調山東丁男為戍卒, 繒帛為軍資, 有屯田以資糗糧, 牧使以婉羊馬. 大軍萬人, 小軍千人, 烽戍邏卒, 萬里相繼, 以却於強敵.”

89) 劉錫濤·古麗札帕爾. 2005, “淺談唐代的軍警預報制度: 烽堠制度 - 兼談唐代西域的烽堠分布 -”, 喀什師範學院 26-2, 41오른쪽-42왼쪽.

IV. 결론

貞觀 21년(647) 三月 李勣·孫貳郎·鄭仁泰 등 唐兵 3천 명이 출정하였다. 이들이 육로로 진격했으므로 3천 명의 군량과 무기는 河北道 백성들 또는 병사들이 차출되어 운반했을 것이다. 『通典·州郡典』의 예로 계산한 李勣 등 3천 명은 三月부터 五月까지 3개월 동안 소비한 식량은 2,910石에 불과하다. 그러나 육로로 식량을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정규군인 3천의 2배인 9천 명의 운송인력이 필요하였다.⁹⁰⁾ 그리고 이들은 河北道 내지에서 차출해야 했을 것이다. 숫자는 적지만 幽州와 營州 사이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幽州 이남의 지역에서 동원된 백성들과 군사들이 營州까지 가는 거리도 만만찮았다. 게다가 이들이 50일 이상 군량 수송에 동원되었으므로 租庸調를 면제해야 했고 三月-五月의 농사철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농사를 망쳤다.

牛進達과 李海岸의 1만 唐兵은 貞觀 21년(647) 三月부터 七月까지 高句麗의 해안 일대에서 작전했는데, 최소 5개월의 식량, 즉 최소 16,667石의 식량을 휴대하였다. 薛萬徹과 裴行大가 貞觀 22년(648) 지휘한 3만의 唐兵은 正月부터 七月까지 대략 7달 동안 高句麗의 鴨綠水 등지를 침략하는 동안 휴대한 식량은 최소 67,900石이다. 당대 丁에게 租庸調를 부과하는 규정에 따라 萊州 및 주변 11州에서 거둘 수 있는租는 219,574石이었다. 따라서 高句麗 원정군의 식량인 최소 16,667石과 67,900石의 식량을 萊州와 山東半島 일대의 州에서 거둔 징발하고 운송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烏胡鎮에 石神感이 이끈 5천의 보병과 기병이 주둔하였다. 주둔 기간을 알 수 없어 주둔군에게 필요한 군량을 계산할 수 없다. 貞觀

90) $9,000 \div 3,000 = 3$ 이므로 3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교의 경우 원래의 값을 빼야 하므로 2배라고 표기해야 한다.

22년(648) 벌어진 세 차례의 해상침략 기사에서 동원된 선박 수를 기록하지 않아 선박제조비용 또는 동원인력을 계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 唐의 국지전이 시작된 貞觀 21년 모두 1,350척의 배를 만들었다면 735,217명의 50일 노동력 또는 그에 해당하는 1년 租庸調 징수액이 필요하였다. 735,217명은 당시 인구의 5.95%, 남녀 성비와 성인·노약자 비율이 각각 1:1이라면 성인 남성의 23.8%에 해당한다. 貞觀 21-22년 唐의 ‘기습 국지전’ 당시 唐兵은 최대 3만 명(貞觀 22년 薛萬徹과 裴行大이 동원한 군대의 수)을 동원하여 병사나 물자 동원에 수나 양적으로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350척의 배를 건조하는데 약 735,217명의 노동력을 동원했다면 동원인력을 적다고 보기 어렵다.

군량 수송과 선박 제조에 동원된 인력이 약 735,217명이었는데, 이들의 요역 동원 시간이 50일을 초과했으므로 735,217명의 1년치 租庸調 세금을 면제해야 했다. 성년 남성이 전체 인구의 1/4이었다면 면제된 嶺南 지역을 제외한 租庸調 수입은 전체의 27.5%에 해당했으므로 唐의 재정 손실이 컸다. 따라서 『冊府元龜』와 『新唐書』, 『資治通鑑』에 기록된 唐兵의 전과와 高句麗의 피해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唐 역시 高句麗와의 전쟁을 위한 배를 만드는데 많은 인력과 재력을 소모해야 했다.

투고일: 2023.06.03. 심사완료일: 2023.06.20. 게재확정일: 2023.06.26.

| 참고문헌 |

1. 한국어 문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1, *高句麗 對隋, 唐戰爭史*, 국방부.
- 나동욱. 2009, “640년 후반 高句麗·唐 전쟁에 대한 검토”, *軍史* 72.
-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李萬烈. 1977, “高句麗와 隋, 唐과의 戰爭”, *한국사2: 민족의 성장*, 국사편찬위원회.
- 李丙燾. 1959, *韓國史(古代篇)*, 新丘文化社.
- 李丙燾. 1976, *高句麗의 對隋·唐抗戰*,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李昊榮. 1996, “수, 당과의 전쟁”, *한국사5: 삼국의 정치와 사회I 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 임기환. 1994, “고구려와 수, 당의 전쟁”, *한국사4: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2*, 한길사.
- 임기환. 2012, “고구려와 수, 당의 전쟁”, *한국군사사-고대II*, 육군본부.
- 임기환. 2014, “7세기 동북아 전쟁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 - 고구려와 수, 당의 전쟁을 중심으로”, *역사문화논총* 8, 신구문화사.
- 정동민. 2017, “최근 중국 학계의 고구려 전쟁사 연구”, *軍史* 102.
- 崔珍烈. 2022, “唐太宗 高句麗 親征과 唐軍의 병력-군량으로 추산한 唐軍의 수와 그 함의-”, *軍史* 124.
- 崔珍烈. 2023, 「唐太宗 시기 高唐 전쟁과 선박 제조-제조 인력과 건조 비용의 재정부담 분석을 중심으로-」, *軍史* 127.

2. 한문 문헌

- 〈舊唐書〉
- 〈新唐書〉
- 〈通典〉
- 〈冊府元龜〉

〈夢溪筆談〉

〈唐代墓誌彙編〉(周紹良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唐六典〉

3. 중국어 문헌

梁方仲. 1980,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楊希義·于汝波. 1998, *唐代軍事史上(中國軍事通史 第十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

劉錫濤·古麗札帕爾. 2005, “淺談唐代的軍警預報制度: 烽堠制度 - 兼談唐代西域的烽堠分布 - ”, *喀什師範學院* 26-2.